

/지역 단신/

### 강진 병영 재래시장 현대화

강진군 병영 재래시장이 전통미를 살린 한옥 정채로 탈바꿈했다. 강진군은 지난 28일 상인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영 5일시장 현대화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6억5천여만원을 들여 장옥 13동 36점포, 화장실 1동 등을 전통 한옥으로 단장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조선시대 병영은 군사와 교통의 요충지로 번성했다"며 "이번 현대화사업을 계기로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 고흥지역 어민 기술지도도선 취향

고흥지역 어민들의 어업 기술지도 등을 위한 새 지도선이 취향했다. 여수해양수산청 고흥해양수산사무소는 28일 고흥 북동항에서 어업지도선 '바다사랑호' 취향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길이 18m, 너비 4.5m에 25등급 바다사랑호는 1천500마력 엔진 2대를 장착, 시속 33노트로 운항하는 쾌속선으로 10여여원이 투입됐다. 새 지도선 취향으로 신속한 적조예찰과 어업정보 제공 등이 가능하게 됐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 해남 전라우수영 성지내 우물 전남도 문화재 지정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전라우수영 성지(전라남도 기념물 139호)내 우물지(趾)가 최근 전남도 문화재로 지정됐다. <사진> 우수영성지내 우물지는 1.5m 높이에 판석을 이용해 육각형으로 잘 짜 맞추어져 있으며, 우물을 조성한 건립비 2기와 중수비가 남아 있다. 이 우물지는 당시 우수영 성내에 있었던 객사와 동헌·영창·군기고 등 여러 유적 중에서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어 우수영성의 규모와 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 1월엔 진도 수품마을 6월엔 신안 가거도

### ■해수부 선정 내년에 가봐야 할 아름다운 어촌마을

내년에 가봐야 할 아름다운 어촌마을 12곳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29개 어촌마을 중 특색있는 자연경관과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지역축제 등을 고려해 매달 1곳씩 12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북 지역에서는 진도군 의신면 수품마을(1월)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마을(6월), 고창군 심원면 하전마을(10월) 등 3곳이 포함됐다. <진도군 의신면 수품마을>=매년 1·2월에는 지역특산물인 굴을 수확한다. 수품마을에



◇진도 수품마을

### 고창 하전마을과 함께 호남지역서 3곳 선정

는 굴구이와 굴회무침 등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체험 시설이 갖춰져 있다. 마을 뒷산에는 해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가 있어 겨울바다를 비롯한 다양한 자연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천혜의 낚시터를 끼고 있어 주말이면 수많은 외지 낚시꾼들이 찾고 있으며 감성돔과 우럭 농어 등이 많이 잡힌다. 국립남도국악원이 인근에 위치, 다양한 문화활동 체험도 가능하다. 문의(061)544-7635, 011-634-6118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마을>=목포로 부터 131.8km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최서남단의 섬 마을. 독산(639m)을 중심으로 섬 전체가 기암과 석 난대림이며 희귀 동식물 서식지이기도 하다. 조기와 불복락과 전복, 소라 등이 주로 잡힌다.



◇신안 가거도

97년부터 남해고속 패속선이 취항해 목포에서 4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여관 8개소와 민박 등 숙박시설이 완비돼 있다. 문의 017-633-4646, 011-648-1614

<전북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하전마을>=우리나라에서 바지락 조개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다. 드넓은 하전갯벌은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제격이다. 바닷가에서 직접 바지락을 캐서 가져갈 수 있고 다양한 바닷가 생물을 직접 잡아서 관찰할 수도 있다. 해양부가 지정한 어촌체험마을이자 자율관리어업 모범어촌이다.

갯벌 택시와 경운기, 트랙터 등 갯벌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고 있다. 고창

읍내 관소리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관소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덩으로 즐길 수 있다. 문의(063) 560-2227, 563-0117 /송기동기자 song@



◇고창 하전마을

## 화순지역 유사 석유제품 판매 잇단 적발

### 주유소 3곳 영업정지 등 처분

고유가 시대를 맞아 화순 지역 일부 주유소들이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해다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고 영업정지되

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화순군 동면 A주유소는 지난 2월과 5월 경유나 휘발유에 윤활유와 메탄올 등을 섞어 판매해다 적발돼 과징금 2천500만원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주암호 인근 B 주유소도 휘발

유에 메탄올 등을 혼합해 판매해다 과징금 2천만원을 징수당했다. 또 북면 구수리 C주유소도 지난 10월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해다 적발돼 지난달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강진청자문화제·남도음식큰잔치 등 전남 7개 축제

## 내년 한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 문화관광부 전국 51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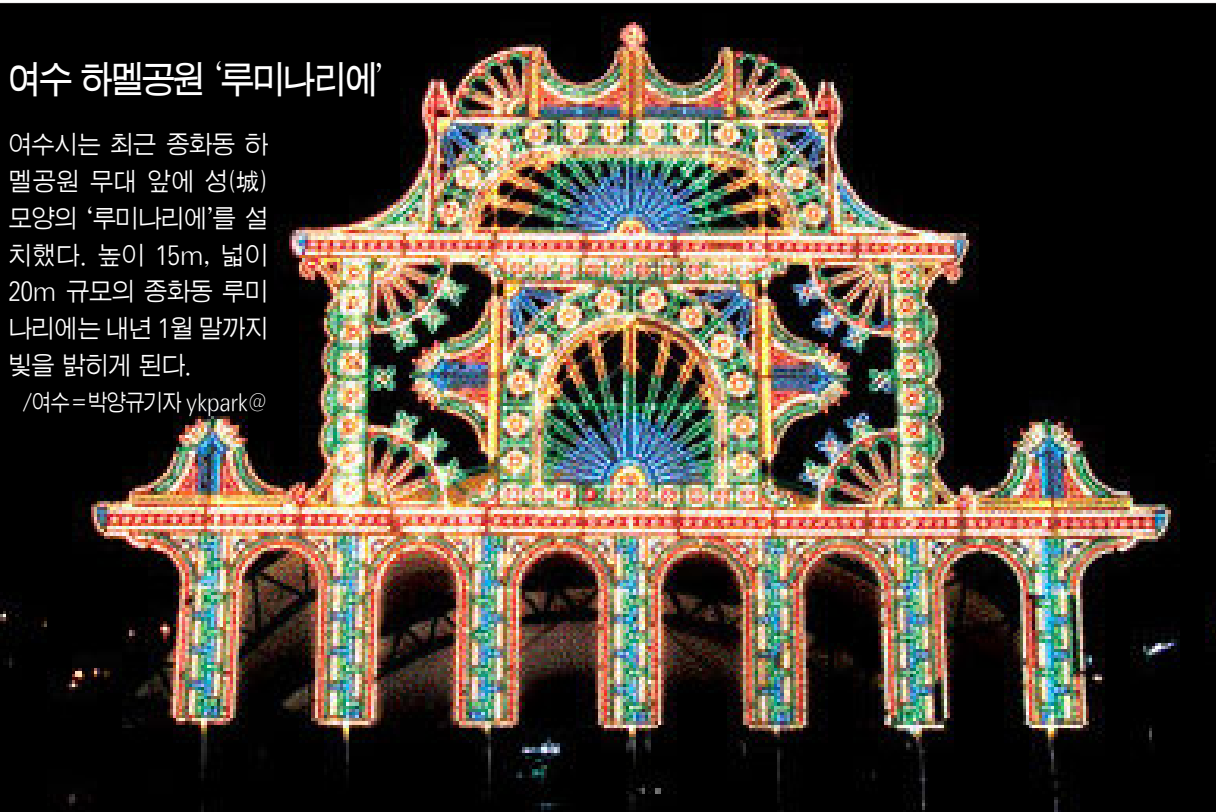
강진청자문화제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등 전남도에서 열리는 7개 축제가 내년 한국을 대표할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문화관광축제선정위원회를 개최, 2007년 대한민국을 대표할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한 결과 전남도에서는 강진청자문화제가 6번째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도 '다양한 음식관련 체험프

로그램, 외국인 유치실적 등을 인정받아 우수축제로 승격됐다. 이와 함께 함평나비대축제가 3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됐으며, 지난 2005년 탈락했던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역시 프로그램 다양화와 외국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의 노력으로 2006년 예비축제로 이어 2007년 유망축제로 선정됐다. 이밖에 보성다향제와 무안백련대 축제 그리고 담양 대나무축제 등이 예비 축제로 선정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광산구 내집앞 눈치우기 의무화 의회 조례안 통과

광산구가 내 집앞 눈치우기를 의무화 했다. 광산구의회는 최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와 이면도로·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제설·제빙이

어려울 때는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들은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건축물내에 비치, 관리해야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제설·제빙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의 책임을 묻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



여수 하멜공원 '루미나리에'

여수시는 최근 중화동 하멜공원 무대 앞에 성(城) 모양의 '루미나리에'를 설치했다. 높이 15m, 넓이 20m 규모의 중화동 루미나리에에는 내년 1월 말까지 빛을 밝히게 된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 곁에 두면 든든합니다! 330년 북경동인당의 명품 동인우황청심환-비



- 중국을 대표하며 330년 역사를 자랑하는 북경동인당의 제품입니다
- 정신안정 작용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 소환 금단(술丹타입은) 휴대와 복용이 간편합니다
- 맛과 향이 우수하고 복용 후에도 입안이 깔끔합니다
-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효과를 인정합니다

이런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 뇌졸중 ■ 그로바 ■ 심계항진 ■ 정신불안  
 ■ 고혈압 ■ 불안정 ■ 자율신경실조 ■ 당뇨병성  
 신리의 필수재약이 보충됩니다 제품 구입하실 때 제조된 북경동인당고분유황청심환을 꼭 확인하십시오



동인우황청심환-비 곁에는 중국 정부의 우리나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문의: 080-022-1010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하세요